전통·현대 불교무용 진수 '한자리에'

불교무용대전 대학로 일원서
6월 20일~7월 12일 진행돼
'한영숙류 승무' 학술대회도
불교무용 대중화 견인 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2일 열린 제11회 불교무용대전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더 무브 아트컴퍼니의 '하얀 침묵의 제의' 중 한 장면.

아시아의 전통·현대 불교무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한마당이 펼쳐진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는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원에서 '제11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제11회 불교무용대전은 올해 3~5월 참가 공모가 진행됐고,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13개 팀(한국 9개 팀, 해외 4개 팀)이 열띤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불교무용대전 주빈국은 일본이 초청됐다.

제11회 불교무용대전 본선은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토·일요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일요일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된다.

1주차 공연(6월 20~22일)에는 △정미영(한국)의 '기대' △이즈 프로젝트(한국)의 '법열곡' △이즈미 유키·세구사 히로미(일본)의 '달빛에 스며든 기도, 비상' △더 무브 아트컴퍼니(한국)의 '하얀 침묵의 제의'가 공연된다. 2주차 공연(6월 27~29일)에는 △이상한 컴퍼니(한국)의 '이상한 악기' △최시원(한국)의 '마음의 방ver2.' △E·C·M 엘리먼트(일본)의 '상상의 친구' △우라시마 유나·츠바키 미호코(일본)의 '셀프 토크'를 선보인다.

3주차 공연(7월 4~6일)에는 △오현택(한국)의 '윤회의 끝, 해탈의 길' △이현아(한국) '바라는 나, 바라보는 나' △정주미재인청예술단(한국)의 '영원한 여정' △예인단 단청(한국)의 '무(巫)·악(樂)' △아디티 바그와트(인도)의 '내면의 부처를 찾아서'가 공연될 예정이다.

무용대전의 대미를 장식할 결선은 7월 12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며, 결선 이후에는 시상식도 진행된다.

이철진 구슬주머니 대표는 "불교무용대전은 신진 및 중견 무용가뿐 아니라 신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용 비전공자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결선을 야외공연장에서 열고, 매주 마지막 공연을 유튜브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불교무용을 일반 관객들에게 소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슬주머니는 6월 12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제11회 불교무용대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영숙과 승무, 그 세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영숙류 승무를 조명하고 전통무용의 가치와 전승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고찰한다.

학술대회 기조발제로는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이 참여하며 이지현 무용평론가, 김기화 한국춤교육연구회 대표,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11회 불교무용대전 본선은 전석 초대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네이버 예약, 인터파크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070-4135-3333

현대 생명윤리와 불교 접점 모색하다

불교평론 여름호 발간
'생명윤리' 주제 특집



한국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25년 여름호(통권 102호)가 발간됐다.

이번 불교평론 특집으로는 현대 생명윤리와 불교의 접점을 모색하는 '불교, 생명윤리를 말하다'를 다뤘다.

특집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불교철학 관점에서 진단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불살생 계율과 동물권'을 필두로 △자살(이명호) △안락사(양영순) △연명치료(선오) △장기이식(신희정) △생명복제(윤종갑) 등 6개 주제에 대한 전문 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기고들이 수록됐다.

특히 최근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안락사 문제는 주목할 만하다. 불교평론은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새 화두로 떠오른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 첨예한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이라며 "우리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혀줄 이번 특집은 생명존중의 실천윤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단에서는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해외 유학승이 근대불교에 미친 영향'과 허호익 대전신학대 은퇴교수의 '카스트 제도를 비판한 불교의 논리'가 실렸다.

'나의 삶 나의 불교'에는 본지 창간 편집국장과 편집이사를 역임한 최정희 선생의 회고와 성찰이 담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가 게재됐다.

이밖에도 '세계의 불교학자'에서는 중국불교를 최초로 서구 학계에 소개한 케네스 첸(Ch'en, Kenneth)과 스위스 학자로서 유럽에 중관학을 싹틔운 자크 메(Jacques May)의 생애와 학문적 성과를 만나 볼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미륵사지서 왜 '중국도자' 출토됐을까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중국도자' 테마展

唐代 청자완 등 112점 전시
미륵사지 국제적 위상 확인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불교문화의 중심 사찰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을 자랑한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발굴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절터에서는 세상을 놀라게 한 서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기와 등 건축 관련 유물, 토기와 도자기 등 생활용품, 다양한 재질의 도구와 장식품 등 2만여 점의 문화유산이 출토된 바 있다.

그 중엔 당나라와 송나라 때 제작된 중국 도자기가 다수 포함돼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백제의 사찰에 왜 당·송의 도자기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 미륵사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8월 31일까지 테마전 '미륵사지 중국도자'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미륵사지 재발견' 학술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미륵사지 출토품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전시는 해당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첫 전시로, 전시에는 당대 월요 청자완 등 112점이 공개된다.

전시는 크게 3부로 나눠 구성됐다. 1부 '미륵사지 중국도자'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를 △월요 △요주요 △형요 △정요 △경덕진요 △건요 등 생산 가마별로 소개한다. 대부분 파편으로 남아 있는 미륵사지 출토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개성 출토 완형 중국 도자도 함께 전시했다.


테마전에 전시되는 '청자 꽃모양 완'.

2부 '국내 유적 중국도자'에서는 미륵사지 중국 도자를 고려시대 유적 출토품과 비교·전시했다. 중국 당송자기는 신라 수도 경주 왕경유적, 황룡사지 등과 고려 수도 개성(개경) 만월대 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주 지역과 파주 혜음원지, 원주 법천사지, 남원 실상사 출토 중국 도자를 함께 소개해 고려에 수입된 중국 도자의 양상과 그 특징을 비교 조명했다.

마지막 3부는 '고려청자와 중국백자'를 주제로 전시가 구성됐다. 고려시대는 국가와 왕실, 사찰 등의 각종 의례와 행사에 차가 사용되었다. 또한 관료 문인들의 차에 대한 관심과 애호 속에서 차 문화가 더욱 발전했다. 이로 인해 고급 차와 함께 다기(茶器)도 중요시 됐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출토 중국도자는 당·송의 교류는 물론, 고려에서 유행했던 차 문화도 함께 조명하는 매우 귀중한 유물"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미륵사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익산박물관은 전시와 연계해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포토카드를 활용해 도자기의 형태와 문양, 색을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감상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캐나다서 선보인 단청 입은 부처님

무우수갤러리, 토론토서 '韓 색채와 혼'展

단청 옷을 입은 불상부터 좌선하는 단청 부처님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단청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종로 무우수갤러리는 "6월 1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배더스트 갤러리(918 Bathurst Gallery)에서 'OIS Art of Canada'와 공동으로 '한국의 색채와 혼: 단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2일(현지시간)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2024~2025 '한-캐 문화예술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김선용·문활람·박일선·서칠교 등 한국 전통미술 장인과 현대 작가 12명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단청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전통 단청 10여 점 외에도 조각·벽화·사진 등을 단청으로 재해석한 현대 작품 20여 점 등이 전시된다. 불상을 단청 문양과 채색으로 재해석한 '단청의 사유'(서칠교)나 'Begin again'(이재윤), 'Impermanence'(이재윤), 고양이 문양으로 단청을 표현한 '단청입은 고양이'(조혜영) 등이 단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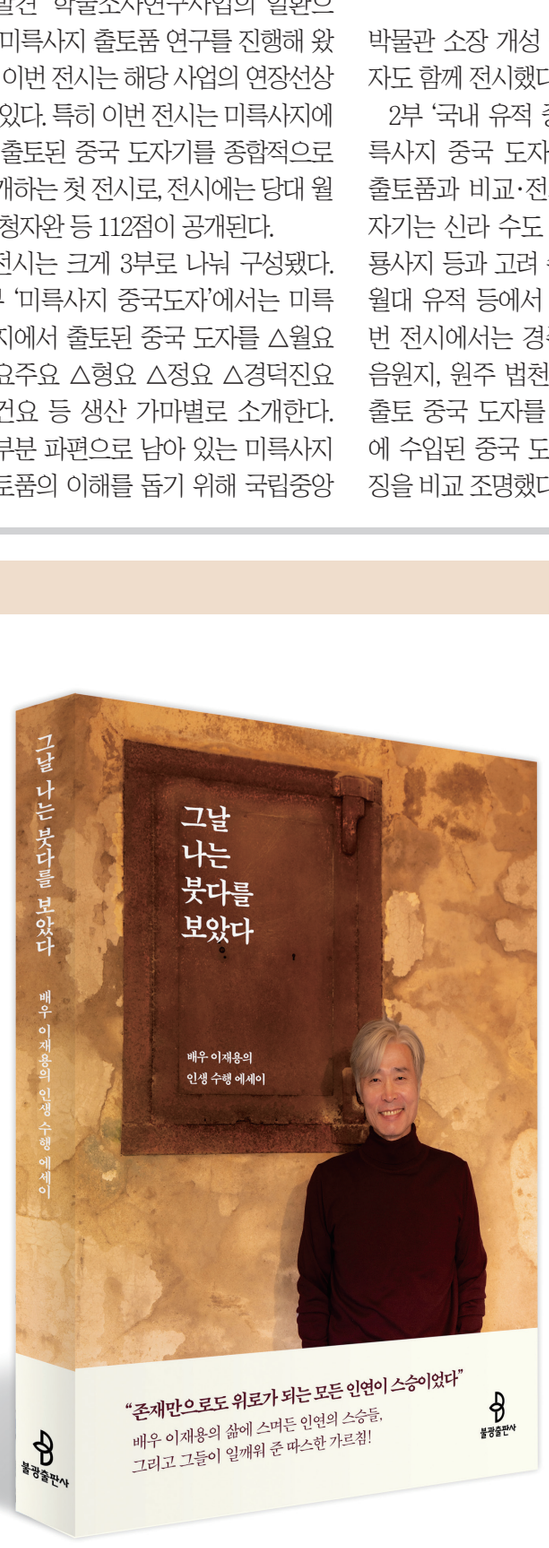

서칠교 작가의 '단청의 사유'

무우수갤러리는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인 단청의 아름다움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는 8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배우 이재용의
인생 수행 에세이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재용 지음
240쪽 | 18,000원

불자이자 배우 이재용의 삶과 수행,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마음이 공허하고 울적할 때
곱씹을수록 재밌고 가슴 뭉클해지는 에피소드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된다.

이 책에 담긴 글이 예사롭지 않다. 삶을 관조하고 세상을 달관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울림이 있다. 한 편 한 편이 감동 그 자체다. ●● 강원국(《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문장은 뜨겁고 사유는 깊다. 이것은 배우 이재용이 써내려간 '살아있음'의 기록이자, 혼란한 세상을 떠도는 모두에게 끈질기게 질문하는 책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냐고. ●● 김별아(소설가)

이 책의 독자들은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난 뒤 세상의 수많은 작은 것들이 사소하지 않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상은 참 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말이다. ●● 김경일(인지심리학자)

이재용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종교는 불교이며 법명은 '적정'이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그만의 찰진 연기를 선보이며 40년 넘게 배우로 살았다. 본명인 이재용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야인시대〉의 '미와경부'와 〈친구〉의 '차상곤' 등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기억될 만큼 맡은 배역마다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불교가 가르쳐준 삶의 지혜가 오롯이 녹아든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꿈꾸며, 현재 일상 안에서 멈추고 비우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수행의 조각들을 채워가는 중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